

투데이 칼럼

한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의 몰락

한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이 지난달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 패했다. 한국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

온 국민이 발집을 살리며 한국 축구를 응원했지만 도하의 충격적인 패배 소식은 지금도 어둠으로 남는다. 이로써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부터 9회 연속 이어온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축구광인 필자는 그날 경기를 가슴 졸이며 끝까지 지켜봤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몰락은 휴단처럼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미처 몰랐다. 정말 치욕적인 패배였다. 경기를 시청하는 내내 답답함과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 134위, 한국은 23위다. 무려 111계단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번 경기만큼은 111계단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론 FIFA 랭킹이 성인 대표팀 기준이긴 하지만 약체로 평가받았던 인도네시아에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은 이날 인도네시아를 맞아 수비 허멍을 후방에 세우는 소극적 전술을 사용했다. 한 수 아데라는 인도네시아는 전반 내내 강한 압박을 통해 우리 선수들을 양 측면 터치라인 부근으로 밀어냈다. 선수들 간 거리를

벌려 한국의 패스 정확도를 낮추고 역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윽고 전반 15분 인도네시아 리파엘 스트리키에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멋진 중거리 슈트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순간 가슴이 찡찡 내려앉았다. 수비 불안 문제가 됐다. 한국은 매번 불안한 수비로 상대 팀에 결정적 찬스를 내준 뒤 가까스로 막아내는 아슬아슬한 경기를 이어갔다.

솔직히 경기를 지켜본 결과 질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가 공수 전환이 빠르고 침투 패스도 빨랐다. 한국은 슈팅 수, 유효슈팅 수, 볼 점유율, 침투 패스, 체력, 투지, 개인기 등 모든 면에서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밀렸다. 후반 막판 황선홍 감독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조별리그 2경기 3골로 득점왕 공동 선두였던 이영준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할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영준을 전반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후반전에야 투입했으니 2분 만에 퇴장당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지속되었다.

한국 축구는 이제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느낌이다. 조기축구회와 같은 야마우어 수준으로 보인다. 일본은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침몰시키며 결국 우승까지 하지 않았던가. 일본 축구가 왜 강한지 그것부터 배워야 한다.

한국 축구가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아시안게임이나 A대표팀 아시안컵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동남아나 중동 국가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변하다. 실제로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맞붙었던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다가 골키퍼의 몇 차례 선방과 상대 팀의 골 결정력 부족으로 승리하는 개운찮은 결과를 보였다.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패배를 막을 전이 좌절되자 많은 축구팬과 침묵하던 축구지도자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팬,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탈락이라는 대참사를 야기하고도 자리만 보전하려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정해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정해성 위원장은 결과가 잘못됐을 때 자신이 책임진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황선홍 감독에게 투쟁을 맡기면서 패배올림픽 진출을 좌절시킨 인물이다.

한국 축구가 감수욕 피보하는 이유는 정몽규의 축구협회 장기 집권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 회장은 나후된 축구 재변을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대표팀 성적에만 몰두하는 현 집행부 졸속 행정을 펼쳐온 사이다. 린스만 감독의 무명하지 못한 선인과 한국 축구의 처참한 내분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스스로 자멸을 지조케 했다.

현재 한국 축구 A대표팀 감독은 공석이다. 보도에 의하면 축구 대표팀의 차기 사령탑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제시 마시 감독은 연봉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 이밖에 포르투갈 출신의 브르노라즈, 멕시코의 헤비에르 아귀레 등 몇몇이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불명암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누가 감독을 맡든 한국 축구를 장기 플랜으로 세대교체를 통한 새 선수 발굴과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감독 선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듬해 위주의 선수 선발 관행을 없애고 실전 위주 선수 선발을 통해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고 경기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사설

어르신 의료기 '헬스트론' 무료체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81-3 주원빌딩 3층에 있는 '헬스트론' 전주지점에서 지난 3월부터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의료기 무료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1일 약 2백여 명의 노인들이 45분씩 무료 체험을 하고 있다. 효과를 체험한 어르신들이 늘면서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도 매일 늘고 있다.

우리의 인체는 누구나 수백에서 수만 볼트의 교류, 그리고 수백에서 몇 천 볼트의 직류 전압을 발생시킨다. 인체에 흐르는 전기는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원활한 전기 흐름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이 찾아온다. 젊었을 때의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해결책은 피를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탁하고, 끈적끈적하고, 거무튀튀한 혈액을 깨끗한 '선홍색 혈액'으로 바꿔야 한다. 전기

를 흐르게 해 노폐물 배출은 물론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까지 생기게 해야 한다.

전기를 땅에서 절연 상태로 인체에 가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헬스트론' 의료기의 원리다. 건강한 혈액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노인성 만성질환은 불량한 혈액이 주범이다.

혈액이 일으키는 질병은 무려 1만 가지가 넘는다. 원인을 알면 치료가 수월해진다. '헬스트론'은 관절염, 고혈압, 어깨결림증, 불면증, 두통,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자의 몸에 전기를 흘려보내 치료를 하는 의료기다.

빈혈, 고지혈증, 간 기능 장애, 신장 기능 장애, 갑상선 기능 이상, 열증, 감염, 암 등도 모두 불량한 혈액에서 비롯된다.

혈액순환 개선 의료기 '헬스트론'은 일본 백생과학연구소(白生科學研究所)가 이미 96년 전에 개발했다.

새만금 잼버리 해산 작업

새만금 잼버리 해산 작업이 터덕거리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파행으로 끝났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9개월이 지났는데도 해산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당시 아영지를 가득 메웠던 개당 10만 원대 텐트 2만 3천여 개가 그대로 있다. 개당 4천원 정도에 공매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시설 부족과 부실 운영, 태풍의 영향으로 조기 퇴영 결정이 내려지면서 예정 기간의 절반만 치러졌다.

이후 1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해산 절차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시 대회 물품이 공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잼버리 텐트는 모두 공매 중이다.

전체 공매가는 구입가의 4%에 불과하다. 월값인데도 거래는 쉽지 않다. 한 번에 수천 개를 사야 하는 최소 매입 기준 때문이다. 당시 텐트 설치엔 예산 33억여 원이 투입됐

다. 잼버리나 구명뱃목 등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제품이다. 폐막 이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자 임시 창고 사용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까지 철거 등 해산 작업이 됐어야 한다. 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시설 및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이 없어 예산만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잼버리 조직위 측은 폐막 후 현장 실사와 감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늦어졌고 공매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와 소송 대응 등의 이유로 해산이 늦어지고 있는 잼버리 조직위엔 올해 예산 17억여 원이 편성됐다.

새만금 잼버리는 여전히 시작과 끝이 모두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라이칭더 신임 총통 "양안관계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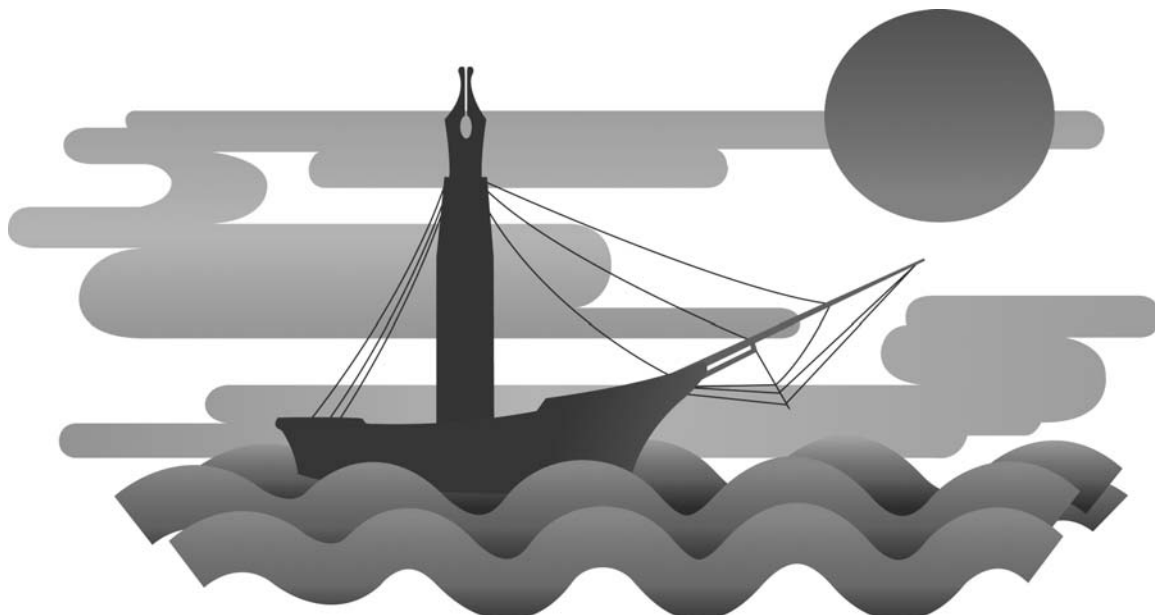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20일(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열린 총통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 전일 정권의 8년 집권 기초를 견지하며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심히 들고 가렴"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구호 식량을 받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